



http://council.gangwon.kr

강원 의정

월간 강원의회 제169호

2019년 11월 1일 금요일

발행처: 강원도의회

발행인 강원도의회 의장 한금석

편집인 강원도의회 사무처장 최성철

Gangwon Council Activities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강원도의회 TEL. (033)249-5169 FAX. (033)249-5023 ukwhan@korea.kr 인쇄: 강원도민일보사 출판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자치분권 시대의 시작입니다



제169호 지면 안내

- 도정질문 2~6면
- 의회운영/기획행정위원회 7면
- 사회문화/농림수산위원회 8면
- 경제건설/교육위원회 9면
- 송전선로대책특별위원회 10면
- 5분 자유발언 11~13면
- 주요안건 처리현황 14면
- 함께하는 강원도의회 15면
- 정치후원금 기부 광고 16면

성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GANGWON PROVINCIAL COUNCIL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2019. 10. 22.(화), 제2차 본회의



신명순 의원

농림수산위원회 / 영월2

Q 강원상품권에 대한 그 간의 성과는 어떻게 보시는지?

☞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 근본적으로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구매하는 데 불편함이 있고 그다음에 사용하는 데 불편한 점이 있고 그다음에 가게 같은 곳에서는 이것을 환전하는 데 불편한 그런 문제가 있는데 모든 시책들이 시행초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Q 강원상품권은 노인에 대한 형평성 등 태생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미판매분에 대한 계획은?

☞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 미판매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일반인들이 구매를 할 수도 있고요, 지금과 마찬가지로 구매도 할 수가 있고 내년도에 또 정책적으로 우리 도가 지급해야 될 여러 가지

복지수당에 활용하여 소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임.

Q 강원상품권 판매내역을 보면 법인판매분이 대부분임. 개인 판매비율이 낮다는 것은 3년 차가 된 지금도 아직 상품권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는 방증이라 보는데?

☞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 개인판매가 급속히 늘었는데 일자리 특별추진대책으로 지급한 것 외에는, 예를 들어서 2017년에 48억에서 2018년에 73억으로 올라갔고 또 올해는 많이 늘어서 131억이나 판매가 됐음. 판매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Q 강원상품권은 편리함보다는 불편함이 더 많이 알려졌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 강원상품권을 도입하고 홍보를 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을 많이 했음.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720억을 판매해서 5,000억 정도의 지역유출을 막고, 5,000억이 감소돼서, 유출되던 그 돈이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갔고요, 그 사람들의 매출이 올라갔을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소득도 또 증대됐을 것임.

Q 강원상품권이 시장에서는 왜 외면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 사용이 편리하도록 해 주어야 되고 구매도 편리하게 해 주어야 되는데 모든 시책이 시행초기에는 그런 문제점이 조금 있음.

Q 종이상품권을 모바일로 전환하기 위해서 이번 회기에 조례도 정비하려다가 상임위원

회에서 계류된 것으로 알고 있음 사유는?

☞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 종이상품권에 대한 성과분석이, 지금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지적해 주셨고, 11월 중에 우선 도 자체적으로 분석을 할 계획이고, 만일 보다 더 자세하고 객관적인 성과분석이 필요하다고 하면 내년도에 외부기관에 의뢰해 성과분석을 할 계획임.

Q 강원도에서 지역화폐를 계속 존치하려고 하고 있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지?

☞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 다른 이유 없음. 지역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들의 매출과 소득 증대를 위해서 하는 것임.

Q 공약사항 중에 미완료 사업이 있음. 대표적인 부진 사업의 사유는 무엇이고, 그리고 남은 임기 동안 어떻게 추진해 나가실 것인지?

☞ **도지사 최문순** : 제일 답답한 게 우선 남북관계 사업임. 나머지 부분들은 대개 진행 중인 사안들이고, 특히 최근에 우리 도민들이 많이 분노하고 있는 사안들이 환경부와 관련된 사안들, 이런 것들 전부 다 난제로 남아 있음. 앞으로도 잘 챙겨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완성하도록 하겠음.

Q 접경지역도 도지사의 염원을 담아서 미리 평화지역이라고 명명을 하셨는데?

☞ **도지사 최문순** : 국회에도 법이 제출돼 있고 이제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바꾸어서 관광지역으로 바꾸어 보고자 하는 노력임. 폐광지역도 이름을 좀 바꾸자, 이런 제안을 하고 있음. 부정적인 이미지들을 바꾸어 나가는 작업으로 봐주시기 바람.



정수진 의원

농림수산위원회 / 비례

Q 무상교육 완성을 위해 노력해 오신 입장에서 지난 10년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 **교육감 민병희** : 교육은 권리이자 의무임. 어디에서, 누구라도 관계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인간성을 실현할 수 있는 책무가 정부에 있다는 것인데 정부의 위임을 받은 교육감은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봄. 지금까지 '무상'이라는 말로 여러 가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이젠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무상'을 빼고도 당연히 지원해야 되는 그런 것으로 정착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노력해 왔음.

Q 교육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해야 하는데 이러한 현실에 대한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한 신는지?

☞ **교육감 민병희** : 재정의 여유가 없기 때문

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2014년부터 동결돼 있는, 누리과정지원비가 29만 원으로 고정인 데 있는데 이를 상향시켜려 정부에 건의하고 있음.

Q 강원도교육청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50%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

☞ **행정국장 최수길** : 정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에서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취원율 목표를 50%로 잡게 된 것은 계획 당시에 이미 강원도는 공립유치원 취원율이 37.6%였기 때문에 40%는 의미가 없었음. 10% 정도를 어떻게 취원율을 늘릴 것이냐에 대한 방안은, 아시겠지만 춘천, 원주, 동해라든가 이런 데는 취원율이 20% 정도에 머물고 있음. 취원율이 평균치에 미치지 못하는 시 지역에 단설과 병설을 증설하겠다는 것임.

Q 춘천, 원주, 강릉 단설유치원 신설계획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불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한 설명과 향후 계획은?

☞ **행정국장 최수길** : 춘천 경우에는 환경평가가 안 됐다는 것으로서 원안 승인이 안 됐음. 원주 기업유치원 같은 경우 재검토가 필요했고, 홍제유치원은 유천초 병설을 검토하거나 개발지구 인근에서 부지를 찾으라고 했던 것임. 당초에는 저희가 12학급 226명으로 계획했었는데 이것을 줄여서 6학급 108명으로 계획하고 있음.

Q 가정형 Wee센터가 없는 초등학교들은 지금 어떤 보호를 받고 있는지?

☞ **교육감 민병희** : 저희는 전국 최초로 기숙형 공립 대안초등학교인 노천초등학교가 개

교돼서 운영되고 있음. 노천초등학교는 정원이 108명이기 때문에 도내의 그런 초등학교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놓고 있고 Wee센터와 거의 같은 기능을 하는 대안초등학교로 운영중임.

Q 단설유치원 신설과 관련해서 교육감님의 종합적인 의견은?

☞ **교육감 민병희** :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고 나니까 아이들이 몰리고, 그 아이들을 멀리 분산 수용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지역에 또 학교를 만들어야 되고, 이게 대도시에서의 악순환임. 현행 법률상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 해서, 하여튼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Q 해조류 보식과 모니터링 등을 통해 꾸준한 관리가 되었는지?

☞ **환경해본부장 고영선** : 모니터링과 보식 관련해서 작년까지는 부착관을 설치해서 해조류를 이식하는 데에 중점을 뒀지만 금년부터는 보식과 더불어서 수산자원관리공단의 모니터링 사후관리도 함께 추진하고 있음.

Q 산성화로 인해서 갯녹음 현상이 발생하여 수산·동식물 서식공간의 해조류가 사라지면서 어획량이 급감했는데 그런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이 있는데 우리 강원도의 경우 사업내용은 어떤 것이 있고 현재 세부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지?

☞ **환경해본부장 고영선** : 저희가 일단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바다숲 조성사업이 있음. 도비지원사업으로 갯녹음 암반부착사업도 하고 다시마 자원회복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음.



원 태 경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 춘천3

Q 친환경 청정이미지의 수소전기차를 시내 버스라든지 택시, 모든 관용차량에 도입하여 친환경차량으로 바꿨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정책 가지고 있는지?

☞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 수소충전소 사업이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이게 당초 계획했던 수소차 보급이 조금 지연되었지만, 좀 더 안전하게 준비하여 687대의 보급계획을 가지고 있음. 내년 4월 중에 수소충전소 5기가 완공되면 앞으로 수소 보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앞으로 청정강원을 확립시키는 데 우리 수소차 보급이 일조하도록 하겠음.

Q 치매안심센터는 우리 도는 전체 18개 중에서 11개 시군이 완료되었고 7개 시군이 진행 중에 있음. 전문인력도 부족하고 우리 강원도의 특수성 때문에 그러한 사정도 있지만 이 부족한 인력 충원대책?

☞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 작년도에 39%를 채용했고 금년도에 55%를 채용했음.

올해 말 목표를 75%로 잡고 있고, 관련해서 채용계획은 저희가 언론홍보라든가 관련기관, 대학 이런 데에 문서로 협조를 요청하고 또 반회보 등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모집할 수 있도록 하겠음.

Q 지난 1년 동안 분기별로 5개 의료원에 대한 의약품 관리실태 및 폐기실태를 정기 보고사항으로 받아서 관리하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이행도가 어떻게 되는지?

☞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 자체적으로 분기별로 의약품관리 약사심의회를 운영함. 거기에서 심사를 하면서 재고량이라든가 구매라든가 이런 것을 조정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 반품이 발생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반품 조치하도록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음.

Q 의약품 과다폐기로 인해서 의료원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한, 또 의료원의 안전과 신뢰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발생시킨 강릉의료원, 영월의료원, 그 폐기시킨 손실분에 대해서 배상이나 변상조치를 했는지?

☞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 작년에 시정 조치해서 완료된 것까지는 확인이 다 됐고, 지금 감사 부서에서도 매년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음.

Q 2010년도에 토목직 인력이 31명이었음. 금년도에 와서 보니까 35명이 근무하고 있음. 과중한 업무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서 또 얼마나 과중업무에 시달리는지는 알수 있는데 변화하는 시대흐름에 맞는 조직과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 도로관리사업소 조직개편이라든지 업무량에 대해서는 저희 조직관리 부서에서 지난 조직개편 때 어느 정도 검토가 되었음, 장기적으로 조직개편을 하는 방안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 다만 인력을 증원하는 문제는 간단하게 접근하기가 쉽지 않음. 한번 인력을 늘리면 또 줄여나가는 것은 그만큼 어려움이 있음.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음.

Q 교육청 금고를 특정 금융기관에만 몰아준다는 인식을 줄 수가 있는데 때로는 우리 자체에서 내부규정을 바꿔서라도 최소한 3년이 지나면 금융기관을 바꿔주는 것을 좀 정례화시킨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의견은?

☞ **교육청 행정국장 최수길** : 출장소라든가 업무대행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해당 은행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데하고 업무대행만 맺으면 얼마든지 입찰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열려 있다고 생각함

Q 이제까지 국장님한테 많은 질문을 했지만 전체적인 지사님의 의견은?

☞ **도지사 최문순** : 지적해 주신 수소차 보급이 부진한 문제, 그다음에 치매관리 인력 확보 역시 부진한 문제, 의료원 약품관리가 부진한 문제, 그리고 의료원 경영수지 문제,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 직제, 이 문제는 빨리 해법을 찾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음. 금고의 이자율 차이가 있는 것은 공모를 거쳐서 공정한 심사를 거쳤는데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저도 다시 점검하도록 하겠음.



김 형 원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 동해2

Q 동해항이 물동량 규모가 전국 8위임에도 체선율이 지난해 24%에 달함. 그런데 인천항 1.61%, 부산항 1.42%, 포항 13%, 군산 4.3%, 울산 2.09%, 여수·광양이 0.45%임. 그런데 우리는 너무 높아서 아예 포기하는 것인지?

☞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 동해항 개발계획이 해수부 주관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해수부에서 직접적인 요청이나 국가재정사업 투자하는 데 요청이나 이런 것은 부두에 한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내용도 해수부를 통해서 받아야 알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기가 조금 어려운 실정에 있음.

Q 체선율을 낮출 단기대책이 있는지?

☞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 솔직히 말씀드리

면 단기대책은 부두 7선석이 다 완료되는 방법밖에 없다고 봄. 나머지 부두도 국가재정사업으로 돌리는 데 초점을 맞추려고 함.

Q 일본산 석탄재가 대다수가 동해항으로 수입되는데 방사능 등 이런 검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 환경부에서 일단 수입 폐기물에 대한 관리 강화 조치를 8월 30일에 발표하고 9월 2일에 원주지방환경청에서 동해항으로 반입되는 석탄재 6,000t의 전수조사를 실시했음. 그 결과는 방사능이 기준치 이하로 나온 것으로 발표됐음.

Q 일본 활어차 같은 경우 검역 문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 사실 이 부분도 검역을 강화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 기재위 국감에서, 부산본부세관에 대한 국감을 9월 17일에 했는데 실질적인 검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관리·감독 소홀 문제에 대해서 지적된 바가 있음.

Q 기후변화로 인해 재해·재난이 이제는 일상화되어 버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번 태풍피해와 함께 봐야할 것 같아서 또 한 번 짚고자 함. 현재 동해안 산불피해 지역 주민들의 보상 및 복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 지금 한국전력과 의 보상 문제가 아직까지 진행 중인데, 저희

는 올해 안으로 빨리 마치려고 노력중임.

Q 태풍피해가 많았는데 향후 복개천의 관리 방안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 **건설교통국장 안태경** : 현재 복개천은 약 사천처럼 복개 부분을 들어내고 원형 복구가 바람직하지만 사실 그 부분에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음. 도로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배수구조물 크기를 좀 키우든가, 이렇게 대처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음.

Q 앞으로의 도시계획, 그리고 지역의 발전 계획들은 반드시 이런 일상화된 재해까지도 감안하고 계획들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은?

☞ **건설교통국장 안태경** : 앞으로 이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주민과, 시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은 시군에서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에서 행정 지도하도록 하겠음.

Q 소하천의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어떤 지원을 받게 되는지?

☞ **건설교통국장 안태경** : 마상천 같은 경우에도 한 400m 유실되고 인근 농경지 한 60ha가 침수·매몰돼서 피해가 4억 1,000 정도 됨. 이 부분을 개선·복구를 요구해서, 98억원 정도로 해서 중앙에 올려서, 2.3km 전체를 정비하는 것으로 중앙에서 심사 중이고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2019. 10. 23.(수), 제3차 본회의



최 종 희 의원

교육위원회 / 비례

Q 폐교재산 관리 실태를 조사하셨는데 어떤 내용들을 점검했는지?

☞ 도교육청 행정국장 최수길 : 폐교가 458개 정도 있었는데, 반 정도는 매각하고 지금 현재 216개가 남아 있음. 이것을 대상으로 연 2회, 상반기·하반기로 나누어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이때 정기점검 하는 것은 건물 및 토지관리 상태를 확인함. 주민소득사업으로 반드시 10년간 쓰라고 했는데 그것이 준수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Q 춘천교육지원청에 소속되어 있는 부귀분교가 당초의 대부 목적 불이행으로 대부 계약이 해지가 되어 2019년도에 매각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매각이 추진되고 있는지?

☞ 도교육청 행정국장 최수길 : 춘천 부귀분교장은 저희가 2019년 2월 1일부터 3년간 대

부계약을 체결했는데 대부자의 개인사정으로 더 이상은 대부를 못 하겠다고 해서 계약을 해지하고 매각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으나 인근 자연경관이 아주 뛰어나 학생 인성교육장으로 활용하려고 계획을 변경했음.

Q 미활용 폐교들의 관리가 잘 안 되어 우범지역이 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혹시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 도교육청 행정국장 최수길 : 미활용 폐교가 37개가 있는데요, 거기에 건물이 있는 것도 있지만 또 많은 부분은 건물이 없음. 정기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게 외진 곳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라든가 동물들이 들어가서 건물을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출입통제장치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고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관리하고 있음.

Q 강릉시 유천택지에 유천초등학교 신설 허가를 하는 조건이 3개 교를 통폐합하는 조건으로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음. 2020년 2월에 개교를 하는데 통폐합되는 학교가 논의되고 있는지?

☞ 도교육청 행정국장 최수길 : 유천초등학교만이 아니라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개교하는 학교가 4개 학교가 있는데 이때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19개교를 통폐합 하라고 했음. 14개를 통폐합했고 5개 남았음. 통폐합된 학교는 학생 수가 본교인 경우에는 10명, 분교인 경우에는 5명 이하일 때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지역사회가 원했을 때 한 경우임. 자연적으로 통폐합된 것이지 새로운 학교를 신설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통

폐합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림.

Q 학생 수영장이 신축도 아닌 개축을 통해서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현장 중심 체험교육의 효과를 증대하고자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협조를 하실건지?

☞ 도교육청 행정국장 최수길 : 개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의에서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음. 시설 리모델링을 통해서 기능을 조금 더 향상시키고 편의성을 증진할 수 있다고 한다면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저희가 방향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음.

Q 사립유치원 선생님들의 일자리도 보장이 되고 그러면 강원도의 일자리와 인구 기여에도 일조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감님의 의견은?

☞ 교육감 민병희 : 공영형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학부모 부담이 전혀 없는 교육부 사업임. 교육부 사업을 추진할 때는 아주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근본적인 방법은 아까 누리과정지원비 29만 원을 대폭 인상하는 것임. 한 50만 원 정도로 인상하게 되면 거의 해결이 됨.

Q 올림픽 경기장 운영을 3년 내에 흑자로 전환을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했는데 어떤 방안으로 3년 내에 흑자로 돌릴 수 있는지?

☞ 도지사 최문순 : 전체가 44억이 드니 국비 10억, 재단에서 15억, 강원도에서도 10억, 그 다음에 민간기업에서 상업적 이용, 이런 것을 하면 그 정도는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박 병 구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 원주1

Q ASF 백신이나 치료약이 없다면 ASF 확산 방지를 위해 어떤 실효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 농정국장 박재복 : 첫 번째로 소독이 제일 중요함. 소독 분야에 있어서는 3중 소독 시스템을 가동 중에 있음. 첫째로는 경기도에서 발생이 됐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강원도로 넘어오는 도 경계를 중심으로 한 접경도로, 거기에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를 설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농가초소를 지금 모두 설치를 했음. 선제적으로 도의 예비비를 투입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멧돼지의 남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여러 가지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개체수를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함.

Q 야생멧돼지에 의한 ASF 전염 가능성에 대한 초기대응이 미온적으로 대처하여 확산·고착화하는 지적이 있고 환경부에서 이

런 의견을 냈었는데 강원도하고도 의견 차이가 있었는지?

☞ 농정국장 박재복 : 접경지역 쪽에 집중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건의를 했습니다만, 9월 16일에 의심축이 신고가 되고 9월 17일에 확진이 된 이후에도, 농가에서 열네 번 발생이 될 때까지도 환경부에서는 절대 멧돼지에서 발생될 수 없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하고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었음

Q 돼지사육 두수가 많은 철원·원주·강릉·횡성지역에 대한 거점소독시설 대비 철원·홍천·삼척·화천·양양·고성지역의 거점소독시설에 인력을 집중 배치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 농정국장 박재복 : 기본적으로 방역에 있어서는 우선 발생한 지점과 인근한 쪽에 저희들이 초소라든가 이런 것을 집중하는 게 맞고, 당초 통제초소가 6개였다가 지금 29개를 할 때 보면 주로 접경지역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철원을 중심으로 해서 평화지역 위주로 통제초소를 집중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함. 1차적으로는 발생한 지점을 중심으로 한, 그러니까 연천과 철원 주변을 위주로 저희들이 통제초소를 집중적으로 설치했다고 말씀드릴.

Q 타시도 소방본부의 구내식당을 운영을 보면 인력과 부식비 모두를 지원하는 곳이 서울, 대전, 충남이고 인력만 지원하는 곳이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세종, 경기, 전남, 경북, 경남, 창원 등 11곳임. 강원도를 비롯해 충북, 전북은 인력 및 부식비 일체를 지원하지 않고 있음. 이유는 무엇인지?

☞ 소방본부장 김충식 : 그동안 강원도가 소방 현안사업인 장비를 보강한다거나 교체한

다거나 청사 신축, 그다음에 특히 대규모 인력 충원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편중되어 복지 분야에 대한 지원이 미흡했던 건 사실임. 향후 도 예산부서와 적극 협의해서 근무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Q 비연고 소방근무자의 출퇴근 거리가 원거리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안전문제라든지 또는 대형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인력동원에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 소방본부장 김충식 : 올해도 동해안 산불하고 7번의 태풍 등으로 저희가 여러 차례 비상도 걸었고 의원님 지적과 같이 저희 소방력 동원과 함께 원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안전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음.

Q 중학교 남녀공학 전환기준과 그에 따른 지원 및 인센티브는 무엇인지?

☞ 도교육청 행정국장 최수길 : 전환 기준이라든가 무엇을 대상으로 조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지 않고,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그 실행에 맞도록 추진중인 사안임. 관내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 또 당사자 학교인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때 전환 기준은 50% 또는 60%, 3분의 2가 동의를 했을 때에 전환하는 것으로 기준이 각각 다름.

Q 고등학교 선지원 후추첨 결정과정은 비평준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 교육감 민병희 : 가급적 선지원 후추첨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자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평준화의 틀을 깨는 것은 결코 아님.



권 순 성 의원
사회문화위원회 / 원주6

Q 금년 1월부터 9월의 강원도의 발행액 대비 화폐 환수율은 31.8%로 전국 최하위로 나타났다를 뿐만 아니라,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도내 기업소득의 서울 유출이 심각하고 신용카드 사용액도 49%나 외지로 유출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소득의 유출 방지를 위해 지역 화폐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고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 화폐 환수율은 사실상 우리 지역 역의 유출하고는 큰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 한국은행 강원본부의 의견임. 2017년도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총 생산에서 총소득을 뺀 것이 유출 규모인데 그 유출 규모가 2017년도, 강원도가 상품권을 처음 발행하기 시작한 때였음 그 유출 규모가 5,000억 원 정도 축소가 됐는데 이것이 바로 강원도의 상품권을 발행한 효과이지 않나 생각됨.

Q 향후 도에서도 전자상품권을 도입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

자상품권 도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 전자상품권은 발행 비용이 들지 않고, 가맹자 관리가 용이함. 또 가맹점 입장에서는 결제 수수료가 없음. 결제하는 순간에 바로 환전이 되고,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Q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조례 제3조 및 제6조에 의거 도지사와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한 관내 금융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확대에 대한 생각은?

☞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 앞으로 모바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은행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게됨.

Q 하수도 처리 실제 비용과 실제 원가가 차이가 있고 현실화율이 사실 21%밖에 안되는데 차이가 있는 부과액과 실제 처리비용의 차액이 큰데 이것은 어떤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지?

☞ **녹색국장 이덕하** : 현재 실정으로는 사실상 비용을 별도로 지원하거나 그런 것은 없음. 아무튼 이것을 해소하려면 요금의 현실화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군마다 현실화율도 조금씩 차이는 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Q 2019년 노후 배수관 교체사업에 얼마나 책정이 되어 있는지?

☞ **녹색국장 이덕하** : 올해 591억 원, 그리고 내년도에는 674억 원 정도 계상하려고 계획 중임.

Q 강원도에 빗물이용시설이 얼마나 설치·운영되는지?

☞ **녹색국장 이덕하** : 빗물이용시설은 법상

1,000㎡ 이상이 의무적으로 되어 있고, 현재 7개 시군에 18개소가 설치·운영 중에 있음.

Q 2020년도 절수설비 및 기기 등의 설치에 따른 18개 시군 수요조사가 되었는지?

☞ **녹색국장 이덕하** : 시군까지 해서 수요조사를 하였음. 원주시를 포함한 5개 시군에서 304개의 양변기 교체 신청이 들어왔고,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예산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임.

Q 강원도에 유치원을 비롯해서 특수학교까지 1,029개의 학교에 학생수가 17만 2,000명 정도에 비해 빗물이용시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지?

☞ **도교육청 행정국장 최수길** : 빗물이용시설은 설치비가 1억 5,000에서 약 2억 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초기 설치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감. 그래서 많이 확대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림

Q 2020년도 도교육청 사업에 빗물이용, 또한 절수설비 및 기기 설치 등에 대한 계획은?

☞ **도교육청 행정국장 최수길** : 아직 계획은 없음. 기기를 설치해서 물을 절약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기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생활 속에서 물을 절약하는 방법이 있음. 생활 속에서 물 절약을 실천하도록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음.

Q 강원도도 속히 지속적인 물 관리를 위하여 조직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 **도지사 최문순** : 물 자원, 물 재이용에 관한 업무는 사실 거의 없다시피한 상황이어서 그 업무량과 조직, 크기, 이것을 잘 계량해서 하겠음.



김 혁 동 의원
교육위원회 / 태백2

Q 폐특법이 종료된다면 폐광지역에 대한 지원 중 축소 또는 없어지는 혜택이 무엇인지?

☞ **도지사 최문순** : 우선 강원랜드가 문제가 될 것 같음. 저희들이 우선 폐특법의 기한을 없애 달라는 의견을 이미 산자부에 제출했음. 시한을 두고 폐특법을 만드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이미 제출해서, 새만금이나 이런 데처럼 기한 없는 법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했음. 우선 기한을 없애는 걸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음.

Q 폐특법 3차 연장을 위해 추진해야 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 **도지사 최문순** : 우선 법을 고쳐야 되는데, 그 법의 기한 자체를 없애 달라는 것이 강원도의 공식 의견임. 국회에서는 2035년까지 10년을 더 연장안이 올라가 있는데 그거보다는 기한을 없애 달라, 이런 쪽으로 추진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음.

Q 폐광지역경제개발센터 설치 지원을 위한 폐광지역지원센터의 추진경과는?

☞ **도지사 최문순** : 현재 강원도에 TF팀이 만들어져 있음. 그 TF팀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음. 지금까지 폐광지역에 돈이 투입되지 않아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좋은 계획을, 계획 단계에서 정확한 계획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에 이르렀다고 생각함. 서두르는 것보다는 가장 정확한 계획을 확실하게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Q 지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체산업 발굴을 위한 조직 구성과 의견수렴을 위한 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드렸던 특화산업 발굴·육성을 위한 용역 발주에 대한 결과가 나왔는지?

☞ **도지사 최문순** : 지금 지역별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Q 내년도 주요 현안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공모 등 조기 추진 필요성 사업 10개에 포함됐어야 한다고 보는데?

☞ **건설교통국장 안태경** : 제천~삼척 여타가 통과된다는 전제로 저희가 별도 예산 5억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지금 통과가 안되었음.

Q 최근 도 지휘부의 여타 면제 사업의 중앙정부 건의에 대한 전략적 판단 착오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현재 22년이 지난 제천~삼척 고속도로, 앞으로 20년 후나 돼야 가능한지? 여타 사업에 들어가지 않은 현실에 대해서 본 의원을 포함한 해당 지역주민들은 실망을 넘어 좌절감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음. 지역균형발전으로 강원 남부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람.

☞ **건설교통국장 안태경** : 알겠음.

Q 365세이프타운은 우리 지사님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2015년 4월 교육부로부터 안전체험센터 운영을 지정받았음 지사님께서 365세이프타운 안전체험관이 국민의 안전과 공익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용단을 내려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도지사 최문순** : 태백시장께서도 이것을 도에서 맡아달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하셨는데 연 70억임. 서비스산업인데 지금 상태로는 운영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민간에 몇 군데 위탁을 부탁했는데 적자가 너무나 뻥하기 때문에 안 맡으려함. 어느 정도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지금 상태로는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음.

Q 지난 6월 도정질문을 통해 운전직렬의 임용과 에듀버스 사고를 줄이기 위한 것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었음. 운전직공무원은 연고지에서 운행할 때 학생들의 안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의견은?

☞ **도교육청 행정국장 최수길** : 연고지 배치자들과 비연고지 배치자들의 사고현황 통계를 내봤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연고지에 있는 운전직들의 사고율이 높다는 통계는 볼 수 없었음.

Q 연고지에서 근무하는 게 불의의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 **도교육청 행정국장 최수길** : 희망자가 없는 한해서는 좀 더 근무하도록 인사로 풀어보도록 하겠음.

2019. 10. 24.(목), 제4차 본회의



김 경 식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 영월1

Q 올해 2월에 폐특위 업무보고에서, 강원랜드에서 폐광기금을 적게 내는 것에 대한 논란에 대해 강원도는 소송을 하겠다라는 입장이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되셨는지?

☞ **경제부지사 정만호** : 현재 받을 채권의 소멸시효가 5년 남은 것을 보면 2013년 사업분부터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이죠, 그게 약 2,175억쯤 됨. 이미 금년 4월에 소송을 하자라고 내부결정을 해서 법무법인에 소송비용까지 1심 집행비용 1억을 이미 지불한 상태임.

Q 먼저 소송을 진행하려면 경정처분이 필요하지만 아직 처분이 된 것 같지는 않은데?

☞ **경제부지사 정만호** : 저희는 그게 즉각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바로 소송에 들어갈 생각으로 계약까지 하고 1심 착수금까지 지

불한 터이기 때문에 저희 의지는 확고함. 그래서 진행을 하는 중 그 뒤에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을 해서 진행을 중단했음.

Q 최근 강원랜드 상황이 어렵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음. 폐특법 시한이 만료되고 있고 또 최근에는 매출이 줄어서 당기순이익도 줄어 들고 있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세금 부과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 **경제부지사 정만호** :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을 생각이 전혀 없음. 지금까지 밀린 돈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점과 세전 당기순이익의 25%를 내게 되어 있는데 현재 20%를 내고 있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 강원랜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을 하고 있음. 양쪽 다 부담이 큼. 만일 소송을 무리하게, 배당재원을 얹어가면서까지, 또 사업을 포기시키면서까지 진행하면 둘 중 한 곳에는 과장이 상당히 큼. 어떠한 경우든 우리는 그만큼 재원을 확보해야 된다, 과거에 밀린 것은 확보해야 된다는 게 첫째임.

Q 그동안 강원도가 추진했던 안펜시아의 매각 방식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음. 어쨌든 간에 강원도의 큰, 개발공사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알펜시아의 매각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한 가지 방법만 보서는 안 될 것임.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회계법인의 매각 주관사로 하는데 업무 범위는 매수자를 찾는 게 가장 첫째임. 자금력을 가지고, 저만한 경험과 능력 있는 회사를 찾는 게 중요함. 그리고 그 회

사에서 알펜시아를 매입할 수 있는 의향을 타진하고 협상해 나가야 됨. 그 일을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해 너무나도 당연한 생각 같은데 그간 추진방법에 그런 방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다소 아쉬웠음.

매각가격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물론 많은 부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 됨. 제가 근무했던 동강시스타는 공적자금 1,500억 가까이 들어가서 300억에 매각이 되었음. 이럴 수가 있느냐, 누가 책임질 것이냐. 물론 그 공분은 충분히 공감은 가지지만 그 금액이 적정인가에 대해서는 냉철하게, 현명하게 판단을 해야 할 것임. 제가 매각가격이 산정되는 방법에 대해서 깊숙이 들어가 봤는데 전혀 헐값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 그거는 그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딱 1개였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음. 자산 가치 1조 원, 대단한 금액액. 지금 부채가 7,800억 정도 되고 1년에 이자만 180억을 내고, 해마다 이자가 돌아오고 또 변제기일이 돌아와서 차환을 해야 되고, 가장 좋은 건 1조 원에 얼른 팔아 가지고 이익도 남기고 갔으면 좋는데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강원도의 전향적인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고 그 부분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을 약속해 주길 바람.

☞ **도지사 최문순** : 세밀한 조사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대안까지 여러 가지 제안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 대 하 의원
사회문화위원회 / 속초1

Q 미시령터널이 만들어진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 **건설교통국장 안태경** : 국가 지원 지방도 56호선이었는데 국토부에서 설계하다가, 1997년도에 설계 완료하면서 그때 당시에 IMF가 닥쳐서 국가에서 예산을 주지 못하니깐 강원도에 민자로 한번 해 볼 것을 제안했음, 1997년 5월 13일. 그래서 강원도에서 터널만큼은 민자로 추진하게 되었음.

Q 강원도에 고속도로 터널을 제외한 지방도나 국도 터널 중에 유료화된 터널은 미시령터널은 미시령터널이 유일한데?

☞ **건설교통국장 안태경** : 터널설계가 1997년 12월 말에 끝났는데 그때 공교롭게도 IMF 정국이 되면서 1997년 5월 13일에 국토교통부에서 터널 공사비가 한 300억 이상 들어가니까 국가재정 투입이 어려워져서, 강원도에서

민자유치 사업을 해서 조기에 추진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던 중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속초시민들, 영북지역 도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해야 되겠다 해서 추진하게 되어 현재에 이르렀음.

Q 민자사업을 하려면 도로든 철도든 운전자가 통행료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함. 동에서 서로 움직이려면 속초, 고성 천진 아야진, 그리고 인제 이쪽에서, 인제를 거쳐서 인제 근접 흥천, 양구, 화천 쪽으로 빠져나가려면 그 터널을 이용해야 되고, 그리고 동절기에는 이용 안 하고 있음.

☞ **건설교통국장 안태경** : 도로를 인제군하고 고성군에 이관시켰는데 겨울철 제설작업 이런 부분이 시군이 제설 역량이 좀 부족해서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Q MRG 사업이 어떤 건지, 왜 도입됐는지?

☞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 MRG 사업은 최소 운영수입보장 제도이나 현재는 이것을 정부에서 권고하지 않고 있음. 도입 초기에 SOC 분야를, 우리나라가 민간투자를 받아서 SOC를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였는데, 민간인이 들어오려면 일정 수준의 수입을 보장해 줘야만 투자를 한다고 봐서 최소수입을 보장해 주는 제도인데 지적하셨다시피 우리 미시령터널은 최소수입이라고 보기에는 과한 측면이 있음.

Q 협약서 내용 중에 어떠한 부분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 **도지사 최문순** : 계약 자체가 빠져나갈 수

가 없게 되어 있음. 소송을 할 수 없게 아주 치밀하게 되어 있고, 우리는 그 당시에 그런 것을 잘 몰라서 굉장히 엉성하게 해 놨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음

Q 이익을 최대화시키는 구조로 깔고 더 이상 변동량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음. 그런데 통행량의 지수하고 실제지표하고, 그래도 제일 맞는 게 2014년 통계자료를 보면 강원연구원에서 낸 게 맞음.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 당시에 내용은 몇 배로 뱅튀기가 되어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그 뱅튀기 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짚었어야 하는게 아닌지?

☞ **도지사 최문순** : 그러함.

Q 인접 시군에 사는 분들, 그리고 이 도로를 이용하면서 그동안 수많은 예산을, 자기의 통행료를 냈던 분들은 무슨 죄가 있는지?, 딱 하나 주장함. 경제가 어려운 줄 알고 정말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음.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제가 통계를 내보니깐 2억 정도, 3억 정도 지원이면, 시민분들 더 추가가 되면 이런 불편사항들을 줄일 수 있음. 그래서 강원도의 잘못이다 그렇다면 그 인접 시군에 사는 분들은 무료통행이 가능하도록 해 줘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임. 답변 부탁 드림?

☞ **도지사 최문순** : 그렇게 상세히 조사를 해 주시고 문제점도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지금 제안하신 내용도 저희들이 세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음.

위원회 활동

강/원/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원태경)는 10월 15일(화) 제285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및 제28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가결하였고, 제286회 강원도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을 상정하여 11월 7일~12월 13일(37일간)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처리하였고 10월 16일(수) 제2차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 및 작성의 건을 원안가결하였다.

10월 22일(수)에는 2019년 의회운영위원회 연찬회를 개최하여 연간회기운영 개선방안 등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박도영)는 10월 15일(화) 제1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을 처리하였다. 10월 16일(수) 제2차 위원회에서는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등 제도 개선 건의안, 2020년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강원지사 출연 동의안, 강원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여 원안가결 하였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지를 현지시찰하였다.

10월 17일(목) 제3차위원회에서는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2020년도 정기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다.

10월 21일(월) 제4차위원회에서는 강원안전대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강원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처리하였다.



위원회 활동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사 회문화위원회(위원장 심영섭)는 10월 15일(화)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을 처리하였다. 10월 16일(수) 제2차 위원회에서는 강원도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 삼척의료원 이전신축 민간투자사업(BTL)동의안, 강원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하여 원안 가결하였다.

10월 17일(목) 제3차 위원회에서는 강원도 장애인 문화 예술활동 지원조례안, 강원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수정가결), 문화예술분야 출연 동의안, 문화관광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여 원안가결하였다.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농 림수산위원회(위원장 박효동)는 10월 15일(화)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을 처리하였다.

10월 16일(수) 제2차 위원회에서는 강원도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안, 강원도농업인단체회관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여 원안가결하였다.



위원회 활동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

경 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수철)는 10월 15일(화)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을 처리하였다. 10월 16일(수) 제2차 위원회에서는 강원도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내공항 국내선 탑승모객 인센티브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강원도 경제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강원도경제진흥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하여 원안가결하였다.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원상품권 발행 및 유통의 면밀한 성과분석 등 사업의 타당성 재검토가 필요하여 계류하였다. 10월 21일(월) 제4차위원회에서는 강원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 조례안, 첨단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다.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교 육위원회(위원장 이종주)는 10월 15일(화)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을 처리하였다. 10월 16일(수) 제2차 위원회에서는 강원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안, 강원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안,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여 원안가결하였다.



위원회 활동

강/원/도/의/회 송전선로대책특별위원회

송 전선로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신도현)는 10월 24일 송전선로대책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신도현 의원(자유한국당 홍천)을 부위원장에 윤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평창)을 선임하였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신도현의원은 “특위 활동을 통해 투명한 경과지 선정, 주민의견 수렴 등 절차적인 제도 개선을 건의

하고,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구제 대책을 마련하여 문제점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포함 총 10명으로 구성되었다.



5분 자유발언

역사문화유산 관동팔경 아카이브 구축을 위하여

제285회 임시회 / 1차 본회의 / 2019. 10. 15.(화)



정수진 의원
농림수산위원회 / 비례

- 관동팔경은 우리 강원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더 나아가 세계적으로도 널리 알려진 우수한 문화 관광자원 중 하나임.
- 이러한 우수한 문화자산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또 우리 강원도의 우수한 인문학적 자산을 홍보할 수 있는 종합적인 자료집 조차 구비되어 있지 않는 현재의 강원도 문화정책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함.
- 남북한의 화해 분위기 속에서 북강원 지역 관동팔경 문화유산(총석정, 삼일포)자료에 대한 선제적 수집과 정리, 그리고 단행본 도서출간은 더욱이나 잘 알려지지 않은 북강원도에 대한 상세한 인문적 정보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가치 있는 일이며 남북강원도를 통합한 기록문화유산의 정리 및 구축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 중에 하나임.
- 관동팔경 관련 역사문화유산인 사찰 및 누정, 명승지, 건축, 회화, 금석문 등 자료의 집대성과 국역화를 통한 강원지역학 연구 기초자료 구축 사업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안함.

강원도청 이전에 대한 제언

제285회 임시회 / 1차 본회의 / 2019. 10. 15.(화)



심영미 의원
사회문화위원회 / 비례

- 최문순 도정은 강원도 춘천시 관내에 2026년까지 2천 20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지하2층 지상 10층의 청사건립 계획을 수립한바 있음. 이는 도내 시·군 간의 지역갈등을 조장하고 지역이기주의를 부추기는 등 심각한 악영향을 주었기에 다음과 같이 촉구함.
 - ① 공정하고 합리적인 도 청사 이전을 위한 18개 시군의 적합한 의견을 수렴할 것
 - ② 신축 선정부지 공모 및 선정기준에 대해 타시도의 사례를 준수할 것
 - ③ 청사예정지 선정을 위한 관련 전문가의 연구용역 결과를 종합 검토하는 등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할 것
- 강원도는 2020년도 예산 5억원을 반영하여 춘천시 내부에 청사 신축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과 타당성 조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연구용역을 춘천시만이 아닌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공정한 공모와 후보지 선택을 위한 ‘객관적인 전문가 집단의 연구용역 계획’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함.



분단 및 한국전쟁에 따른 민간인 학살에 관한 조사 및 화해노력 촉구

제285회 임시회 / 1차 본회의 / 2019. 10. 15.(화)



박 인 균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 강릉2

- 광복이후 국가와 공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반민주적 인권유린, 폭력, 학살행위 등 묻혀온 피해 사실들에 대한 통합을 목적으로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였으나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했음.
- 냉전의 유물들은 역사의 뒷안길로 사라지고 있고 글로벌 사회에서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며 경제적 이해관계를 함께하고 있음.
- 남북화해와 공존, 동북아의 발전과 교류를 꿈꾸는 즈음, 내부적으로 선결할 것은 해야함.
 - 반목, 증오에서 벗어나 한을 품고 죽어간 이들에 대한 위령이 있어야함
 - 객관적인 조사를 위한 조례를 만들고 치유의 노력과 실천에 힘써야 함
 - 화해와 평화, 공존의 아름답고 발전된 강원도가 되어야함

횡성초등학교 건축 시설에 관하여

제285회 임시회 / 1차 본회의 / 2019. 10. 15.(화)



한 창 수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 횡성1

- 현재 횡성초등학교 운동장 일부는 주차장으로, 일부는 건축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하면서 교실외벽공사, 교실화장실공사, 다목적체육관 내부 및 화장실 공사, 유치원전장공사, 급식소천장공사, 교실창호공사, 내진보강공사, 전기공사, 석면교체공사 등으로 온통 공사 현장임.
- 당초 예산을 확보하고 또 추경에 예산 승인을 받고 7월에 사업 발주하니 학생은 공사 현장 속으로 내몰리고 반 학기 동안 미세먼지를 마시며 밥을 먹고 그 곳에서 뛰어 놀고 운동을 하고 미세먼지를 마시며 반 학기 동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수업을 받고 있음.
- 학생은 공부할 시기가 있고 잃어버린 시간 아무도 책임질 수 없음.
- 지금이라도 학생들이 안전하게 미세먼지를 덜 마시면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 드림.

스포츠 지원 관련

제285회 임시회 / 1차 본회의 / 2019. 10. 15.(화)



정 유 선 의원
사회문화위원회 / 비례

- 2018 평창동계올림픽 등 세계대회에서 우리선수들의 감동의 눈물 뒤에는 혹독한 훈련과 자기와의 싸움을 견뎌낸 각고의 노력이 있었음.
- 현대 스포츠는 형그리 정신으로 악으로 강으로 경기에서 우승을 하던 시대는 지났고 장비, 시설, 환경, 트레이닝, 정보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 첨단과학이 도입되고 있음.
- 현재 지역스포츠과학센터는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10곳에서 운영되고 있음. 강원도에 지역스포츠과학센터가 생기면 우리 선수들도 전문가에게 기초체력과 전문체력을 진단받고 심리적 안정과 기술특성 및 장단점을 분석하는 다양한 스포츠과학을 지원받게 됨.
- 스포츠과학센터는 국비와 인력이 지원되는 사업인 만큼 관련부서와 강원도체육회에서는 정부 공모사업을 철저히 준비하여 강원도 체육인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람.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하여

제285회 임시회 / 4차 본회의 / 2019. 10. 24.(화)



박 윤 미 의원
교육위원회 / 원주3

-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지역 간 여성교육의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여성들의 일자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한 여성취업기관임.
- 안타깝게도 도내에서 여성인구가 17만명으로 춘천과 강릉보다 많고 도내 인구1위인 원주에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아직도 없음. 원주시는 현재 15~64세 경제활동 가능 인구 비율은 가장 높지만 여성 고용 비율은 도내 주요 3개 도시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 여성들의 고학력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결과적으로 청년층의 경제 활동 참가율은 여성이 남성을 추월하고 있음.
- 하루 빨리 여성인력개발 센터가 원주에 설립되어 지역 여성들에게 실효성 있는 직업 교육과 취업 알선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여성의 잠재된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물론, 안심하게 일할 수 있는 복지 환경이 만들어 지길 적극 요구함.

산불극복을 위한 새 전략설계가 필요할 때

제285회 임시회 / 4차 본회의 / 2019. 10. 24.(화)



심 상 화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 동해1

- 동해안의 산불은 그저 사람의 실수로 대형화된 산불이 아님. 아시다시피 유사(有 史) 이전부터 있어왔던 자연현상, 양간지풍에 의한 결과임.
- 금번 산불로 실물경제 피해액이 1,291억원, 복구비가 2,080억 원이라고 하는데, 동해안을 방문하는 관광가치를 기초로 한 간접과급효과 피해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조 단위 피해에 이르지 않나 추정됨.
- 우리의 산불 대책은 기해년 4월 산불을 계기로 달라져야 함. 사람도, 조직도, 예산도, 대비방안도, 복구방법도 모두 바뀌어야 함.
- “장관의 미래 숲”, “녹색산업지대” 등 산불극복의 아이디어를 구체화 명확화 시켜서 오늘의 산불극복을 위한 뉴딜 전략을 수립해야 함.
- 강원도와 강원도의회 그리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TF 팀이 구성하여 TF 팀을 중심으로 산불극복 전략을 수립하여 미래형 산불대책이 되도록 힘을 모아야 함.



주요안건 처리 현황

■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강원도지사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주요내용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의용소방대 운영을 현실에 적합하게 하고자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일부개정하고 인용된 법령조항 정비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법령적합성을 강화하고 도민의 이해를 쉽게 함.

■ 강원안전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 의 자 : 심상화, 안미모, 심영미, 주대하 의원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주요내용 : 강원안전대상의 시상 범위를 명확히 하여 운영의 공정성과 수상의 영예를 높이고, 도내 안전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여 안전문화 및 안전 활동 확산

■ 강원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 발 의 자 : 윤지영, 주대하, 김혁동 의원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주요내용 :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삶의 질을 개선

■ 강원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 발 의 자 : 심영미, 윤지영, 심상화, 이상호, 박상수, 신영재, 심영섭, 한창수, 김병석 의원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주요내용 :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고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 강원도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안

- 발 의 자 : 위호진, 김정중 의원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주요내용 :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레저관광 저변 확대 및 강원도가 해양레저관광 중심지역으로 발전하기 위한 종합적·체계적 지원 근거 마련

■ 강원도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 의 자 : 김형원 의원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주요내용 : 도내 동해항·속초항에서 국제항로를 운항하는 카페리선의 안정적인 운항여건 마련을 위해 화물유치장려금의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합리적 운항지원 기준 마련을 위해 손실 보전금 지원을 중단

■ 강원도 경제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 의 자 : 조성호, 궤도영, 권순성, 박병구, 이병헌, 심영미, 박윤미, 김병석 의원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주요내용 : 강원도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도 경제진흥원의 사업범위 확대

■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강원도교육감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주요내용 : 남북교육교류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당연직 위원 변경 등 조문 정비

■ 강원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안

- 발 의 자 : 심영미, 조성호, 최종희, 신도현, 최재연, 함종국, 주대하, 안미모, 박윤미, 권순성 의원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주요내용 : 교육기부는 공교육의 역량과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 사회의 인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교육기부의 수준을 높이고 활성화에 기여

■ 강원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안

- 발 의 자 : 허소영, 최종희 의원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주요내용 : 강원도 내 지역서점의 문화공간 기능을 활성화하도록 지원하여 강원도 학생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도모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가 되겠습니다.”

함께하는 강원도의회

● 2019. 10. 16. 2019년도 어린이도의회



● 2019. 10. 18. 제15회 강원도 이통장 한마음대회



● 2019. 10. 23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위한 강원도의회 정책토론회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한국선거방송

소중한 정치후원 금

깨끗한 정치로
가는 **길** 이 됩니다

맑은 날도, 바람 부는 날도
한 발 한 발 밀고 나가면
길이 생기고
소중한 소금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배려로
국민과 나라를 생각하는
정도(正道)를 걸을 수 있게...
소중한 정치후원금으로
맑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요

정치후원금 기부하고,
좋은 정치로 돌려받으세요

소액 다수의 정치후원금,
깨끗한 정치를 만드는 격려이자 사랑입니다

정치후원금

연말정산 세액공제

전액
세액공제

이하

10만원

초과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세액공제